

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

2021년 3월 30호

◆ 주요 동향

1. 우한-양산 최대 규모 화물선 운항 개시
武汉首开国内最大直达羊山特定航线船舶
2. '일대일로' 8년간의 중국-유럽 정기열차 변화
中欧班列见证“一带一路”8年巨变
3. 2035년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사특구 완공 예정
2035年全面建成海南自贸港海事特区
4. 중국의 중구해운, 상하이-닝보-호치민 항로 개설
进军外贸！中谷海运“上海-宁波-胡志明”航线-越南胡志明有多香！每周多达25条船！31家船东参与
5. CSP, 텐진항컨테이너터미널유한회사(TCTCN) 지분 34.99% 인수
中远海运港口收购天津港集装箱码头有限公司34.99%股权
6. 푸젠성, 4억 톤 대형항만 건설 5개년 계획 발표
福建计划五年内建成4个亿吨大港
7. 2020년 세계 20대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
2020年全球前20大港口生产形势评述
8. 퀴네앤드나겔, 중국최대 민영 의약회사와 전략적 협력 체결
德迅与中国最大民营医药集团达成战略合作

*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

◆ 기타 동향

9. 양저우항 해사처 “창장보호법” 실시 후 범칙금통지서 발행 시작
扬州港口海事处开出《长江保护法》实施后首张防污染罚单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4308>

10. 산둥성 5억 5,400만 위안 투자한 철도전용선 건설에 박차
累计完成投资5.54亿元 山东全省铁路专用线建设扎实推进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4267>

11. 장쑤·저장, 창장삼각주 수상교통집행법 일체화 추진
江浙两地区联合探索长三角水上交通执法一体化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4245>

12. Ningbo舟山항 2월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치 경신
宁波舟山港2月份集装箱运输生产创历史新高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4217>

13. 산둥성, “14.5”기간동안 현대화된 항만군 건설과 성내 연해항만 만 톤급 이상 선석 360개로 늘릴 예정
山东“十四五”计划构建现代集约港航群 到2025年全省沿海港口万吨级以上泊位达到360个以上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4202>

14. 산둥 칭다오항, THE 얼라이언스 유럽 2선 선박 의 효율성 기록 경신
山东港口青岛港刷新THE联盟欧洲二线船时效率纪录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2994>

15. 에버그린, 1만 8,000개 컨테이너 생산 주문
长荣海运再订造1.8万个集装箱
<https://www.cnss.com.cn/html/hyqy/20210309/340101.html>

작성자 : 장원형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

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

감수자 :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
(kmishanghai@naver.com / +86-21-6090-0395)

우한-양산 최대 규모 화물선 운항 개시

- 2021년 3월 28일 투산핑(涂山峰) 우한항발전그룹(武汉港发集团)회장은 우한-양산 항로에 최대 규모의 화물선인 ‘한해(汉海)5호’ 이 운항한다고 발표했다
- ‘한해(汉海)5호’ 화물선은 후베이(湖北)성, 후난(湖南)성의 의료용품, 기계장비 및 광섬유 케이블 등 수출품을 선적하여 우한양뤄항(阳逻港)에서 출발하여 양산항으로 향함
- ‘한해5호’ 화물선은 길이 139.8m, 폭 26m, 깊이 11.5m, 흘수 6.9m, 최대 적재량 16,338톤 및 1,124TEU로 우한-양산 항로에 투입된 선박중 최대 규모 선박임
- ‘한해 5호’ 화물선은 「특정항로 강해직항선박 건조규범(特定航线江海直达船舶建造规范)」, 「특정항로 강해직항선박 법정검사 기술규칙(特定航线江海直达船舶法定检验技术规则)」에서 규정한 ‘내륙 친환경선박’ 인증 마크를 획득하였고, 선진적인 설계를 인정받았음
- ‘한해5호’ 선박은 현재 주력 선박에 비해 하루 평균 연비가 23% 이상 높고, 컨테이너 운송원가는 30% 이상 낮아졌고, 항로에 투입된 주요 선종 대비 화물 적재량도 두 배로 증가함
- 선박 시험항해 결과 ‘한해5호’ 선박은 조종이 용이하고 디자인이 뛰어나며, 회전반경이 작아 국내의 복잡한 항로에서 유턴 및 이접안의 유리한 특성과 강점을 검증받았음
- 도산핑 회장은 ‘한해5호’ 선박은 주로 우한-양산 노선에서 2주 1회 왕복할 것이며, 현재 후베이성과 후난성의 컨테이너를 모두 우한에 집중해서 환적하고 있다고 밝혔음
- 한편 쉬비아오(徐飏) 화중항만그룹 사장은 ‘14.5’ 기간에 후베이(湖北)성 교통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한 신항(新港)을 중부지역 허브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음
- 화중항만그룹은 1.6억 위안을 투자하여 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건조해 우한-일본 노선에 투입하여 일본에서 유럽까지의 수로와 철도 운송 통로를 개통하고, 국제 및 국내 쌍순환 전략을 더욱 깊이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
- 주충선(朱从先) 화중항만그룹(华中港航集团) 회장은 현재 교통운수부가 우한에서 안칭(安庆)까지의 6m, 우한에서 이창(宜昌)까지의 4.5m 심수항로 준설공사를 진행하는 ‘645공정’은 우한을 기점으로 장창 상·하류에 대형화,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컨테이너 시범선형의 도입을 가능하여 친환경 장강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함

(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. 2021. 3. 2.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3111>

‘일대일로’ 8년간의 중국-유럽 정기열차 변화

- 2013년부터 ‘일대일로’ 정책의 일환으로 개통된 중국과 유럽 정기열차가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음
 - 아시아태평양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연결하는 중국-유럽 정기열차의 개통은 무역장벽을 여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했고, 중국 기업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기업 간의 투자협력을 촉진했음
- 2013년 시범지역에서의 제품 분산 발송부터 현재 정기노선의 상시 운영되기까지 중국-유럽 정기열차에 많은 신규 노선과 신규 품목이 추가되었음
 - 둥관 석룽역(石龙站)은 ‘일대일로’의 시발점으로 ‘웨만아오(粤新欧)’ 및 ‘웨만호(粤满俄)’ 등 2개 통로가 개설되었고, 국경을 넘는 정기열차 600편이 500여 종 품목을 수송하고 있음
- 중국-유럽 정기 열차는 시간효율성, 원가, 수송량과 안정성 등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음
 -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, 중국과 유럽 정기열차는 기존의 전통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서 ‘인터넷+물류경로’의 방식으로 변함. 특히 ‘쌍순환’의 새로운 발전 구조에서 ‘온라인 실크로드’는 생산, 분배, 유통, 소비 등 각 단계에서 국제 물류를 촉진시켰음
 - ‘일대일로’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2013년 11,000km에 불과했던 고속철의 영업거리가 지금까지 40,000km에 육박하게 되어, 여객 수송 및 화물 운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
 - 중국-유럽간 컨테이너 열차도 해외 21개국 92개 도시로 운행되고 있음

(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. 2021. 3. 10.)

<http://fec.mofcom.gov.cn/article/fwydy/zgzx/202103/20210303042545.shtml>

2035년 하이난 자유무역항 해사특구 완공 예정

■ 최근 교통운수부 해사국이 3개 분야 19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「하이난자유무역항건설지원방안」(이하는 방안으로 약칭)을 발표했음. 이하 로드맵과 주요 내용임

■ 로드맵

- 2025년까지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에 상응하는 해사정책시스템과 제도적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함
- 2035년까지 해사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완비된 하이난자유무역항 해사특구 조성을 통해 전국 해사시스템 관리체계와 통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현대화된 시범단지로 조성

■ 첫째, 정치적 지위 향상

- 하이난해사국은 해사서비스 자유무역항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위험 판단을 강화하고, 현안사항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, 해사서비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

■ 둘째, 책임 강화

- 하이난 해사부서에서 크루즈 관광을 위한 특별 해사 감독 및 요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, 검사 및 등록 서비스의 편리화 조치를 제정해야 함
- 하이난자유무역항 선원 관리제도 수립을 추진하고, 개방적이고 편리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 선박 등록 제도를 수립함
- 환 하이난섬 및 남중국해 향해 선박의 전 과정의 동태적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여 선박 등록을 완비하고, 24시간 온라인 정부 서비스를 추진함
-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박 종합 품질관리 관련 모듈을 증설하고, 하이난에 선박대기오염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여 하이난의 녹색 해운을 추진함

■ 셋째, 해사 거버넌스 발전

- 하이난해사국에 더욱 큰 개혁 및 혁신 자율권을 부여하고, 하이난 해사국은 신사업 유형의 해사 관리·감독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더욱 강화해야 함
- 「하이난 자유무역항 국제 선박 조례」의 입법을 추진하여, 더욱 개방적이고 완벽한 해사 법규 체계를 구축함
- 선박 원격 모니터링 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선박 건조에서 폐선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보장을 추진함
- 5G, AI, 빅데이터,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'인터넷+모니터링' 운용을 모색하고, 하이난 해사스마트 모니터링 시범기지를 구축해 국내외 다양한 협력 교류를 강화함

(中国海洋远运e刊. 2021. 3. 9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xv_Gf1HEXiNAIVhP-JVT_Q

중국의 중구해운, 상하이-닝보-호치민 항로 개설

- 중국의 중구해운(中谷海运)의 '상하이-닝보-호치민' 항로가 개설 되어 3월 20일에 첫 운항이 시작됨
 - 중구해운의 신규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상하이항-호치민 항로에 3월에만 새로 투입되는 정기선 라인은 3편으로 증가함
- 현재 상하이항에서 호치민항까지 총 54편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음
 - 선주 투입 상위 3위는 SITC 5편, JINGJIANG 4편 그다음에 COSCO/SEALAND/ZIM/WHL/KMTC 3편을 투입하고 있는데, 무역량 증대로 인해 정기선 회사들은 선박 투입도 증가하고 있음
- 베트남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 무역 파트너임
 - 베트남 통계총국은 최근 무역수지 발표를 통해 1~2월 베트남의 중국 수입은 1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.7% 증가했고, 이와 동시에 1월~2월 베트남의 대중 수출은 85억 달러로 54.3% 늘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

선사별 상하이-호치민 운항 선박 편수								
선주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	토요일	일요일	
COSCO				1		1	1	3
CNC					1		1	2
SEALAND	1	1		1				3
ZIM	1				1		1	3
IAL		1				1		2
HMM		1				1		2
WHL		1	1			1		3
ONE		1						1
BEN LINE				1	1			2
EMC			1					1
KMTC			1			1	1	3
SML						1		1
SITC			1	1	1	1	1	5
OOCL							2	2
MSC				1				1
RCL							1	1
TSL			1		1			2
YML							1	1
PAN GULF						1		1
JINGJIANG	1				2	1		4
CK		1				1		2
ASL					1			1
SINOTRANS						1		1
SINOKOR			1					1
NAMSUNG						1		1
HAL			1			1		2
CULINES				1			1	2
ZHONGGU						1		
	3	6	7	6	8	14	10	54

(维运网. 2021. 3. 10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liNCtQ_bazSqCi38ZmFFfA

CSP, 텐진항컨테이너터미널(TCTCN) 지분 34.99% 인수

- 2021년 2월 26일 COSCO해운항만사(이하 CSP)는 텐진항만그룹과 주식양도협약을 체결하고 텐진항 컨테이너터미널 지분 34.99%를 인수함
 - 이로서 CSP텐진과 텐진항만그룹은 텐진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지분을 각각 45%, 41.69% 보유하게 되었고, 텐진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지주회사는 CSP텐진으로 전환되었음
 - 양도된 지분 34.99%는 인민폐 약 13억 4,837만 위안(약 2,352억원)가치로 평가됨
 - CSP측은 텐진항 항로를 늘리고, 컨테이너 물동량을 텐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평균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약속함
- 2020년 6월 텐진시, 텐진항만그룹과 COSCO사는 세계일류항만건설을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항로 및 시장개발, 육해상 네트워크 확장, 친환경 스마트항만 건설, 거버넌스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
 -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측은 시장을 확대하고 COSCO 선박의 텐진항과 간선 항로의 연계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함
 - 이외 텐진항만그룹측은 현재 CSP측과 텐진항의 유라시아국제(TETC)컨테이너 지분 30% 인수 협상을 진행 중임
- 양측은 이번 지분인수 계약을 통해 해운강국 및 교통강국 건설 추진, 징진지 협동발전, “일대일로” 및 텐진항의 북방 국제 해운허브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

(中国水运网, 2021. 2. 27.)

<http://www.zgsyb.com/news.html?aid=583079>

푸젠성, 1억톤급 대형항만 4개 건설하는 5개년 계획 발표

■ 푸젠성 정부는 2021년 1월 “푸젠성 연해항만 배치규획(2020-2035년)” (이하 “규획”)을 발표함

- “규획”에 따르면 2025년까지 푸젠성 연해 항만 물동량은 6억 8,000만 톤을 달성하고 1억톤급 대형항만 4개 건설과 현대화된 항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임
- 나아가 2035년까지 푸젠성 전체 연해 항만 물동량은 8억 8,000만 톤을 달성하고, 샤먼항의 물동량 3억 톤, 컨테이너 2,000만 TEU를 돌파할 목표를 수립하였으며, 샤먼 국제해운센터도 완공할 계획임

■ 푸젠항과 샤먼항을 전국 연해의 핵심 항만으로 구축하고, 기타 항만들을 지역 거점 항구로 조성하여 기능별로 분업 및 협력하는 항만군을 형성할 계획임

- 샤먼항의 9개 구역(环厦门湾的东渡, 海沧, 翔安, 招银, 后石, 石码, 环东山湾的古雷, 东山诏安)은 대내외 무역 컨테이너, 원유, 크루즈 및 대(對)대만 로로선 운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임
- 푸저우항의 8개 구역(闽江口内, 江阴, 松下, 罗源湾, 平潭, 三都澳, 白马, 沙埕)은 컨테이너, 에너지, 원자재 운송을 위주로 하고, 여객선도 겸업하는 현대화된 종합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임
- 메이저우만항의 5개 구역(兴化, 东吴, 秀屿, 肖厝, 斗尾)은 에너지, 석탄, 철광석 등 대량 벌크 운송을 위주로 하는 종합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임
- 첸저우항의 3개 구역(泉州湾, 深沪湾, 围头湾)은 컨테이너 운송 위주의 현대화된 종합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임
- 푸젠성 연해 4개 항만의 총 25개 구역 중 11개 구역(福州港罗源湾港区, 江阴港区, 三都澳港区, 厦门港海沧港区, 招银港区, 后石港区, 东渡港区, 古雷港区, 湄洲湾港东吴港区, 斗尾港区, 泉州港泉州湾港区)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거점 항만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임

■ “규획”은 성 전체 연해 항만이 “일대일로”와 “교통강국 및 세계일류항만 건설” 등 국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, “해운실크로드” 브랜드를 구축하여 푸젠성 및 내륙 중서부 지역의 대외개방과 양안교류의 중요한 관문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힘

(中国航务周刊, 2021. 3. 2.)

https://mp.weixin.qq.com/s/Xy4dH0nJPhU0D_0Q5m7mzg

2020년 세계 20대 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

- 2020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세계 20대 항만 물동량 성장 속도는 저하되었지만,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20대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1.6%를 기록함
 - 중국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동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. 특히 닝보저우산항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물동량 세계 1위를 지킴
 - 상하이항은 항만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며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동량은 2년 연속 제자리에 머무르는 수준임
 - 탕산항의 벌크 및 컨테이너 물동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상하이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 - 산둥항그룹의 통합 시너지 효과로 칭디오향, 르자오향 및 옌타이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, 텐진항은 일류항만 건설 추진으로 물동량이 소폭 증가함
 - 베이부만항은 서부 육해 신통로 전략 추진에 힘입어 물동량이 고속 성장하고 있으며, 20대 항만 리스트에 새로 진입해 19위를 기록함
 -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홍콩항은 심천항 아래에 기록되었으며, 웨강아오대만구 지역의 광저우와 심천이 컨테이너 생산규모에서 홍콩항을 초과함
 - 전 세계 20대 항만 리스트 중 중국을 제외한 5개 외국 항만 중 중국-호주의 철광석 교역량이 늘어난 헤들랜드항 물동량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음
- 전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 생산현황 역시 지난해보다 물동량이 감소하였지만, 2020년 하반기 수송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0.7% 성장하였음
 - 이 중 선전항과 탄중펠레파스 및 롱비치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
 - 중국의 국내 방역 및 업무 재개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 항만도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, 대다수의 항만이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실현함
 - 상하이항은 국내 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면서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함
 - 닝보저우산항은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며 컨테이너 물동량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 - 텐진항은 터미널의 자동화개조, 자율주행시범 등 프로젝트들을 통해 연간 6.1% 성장률을 달성함
 - 다롄항은 코로나 초기 내수용 컨테이너 부족문제와 잉커우항과 통합 업무조정 영향으로 컨테이너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남
 - 뉴욕 /뉴저지항은 롱비치항과 함께 람차방항, 다롄항을 대신해 20위권 대열에 새로 진입했음
 - 유럽 항만의 물동량은 대부분 하락했으며 안트워프항만 1.4% 성장함
 - 탄중펠레파스항은 신규 설비들과 항로준설에 투자하고 차세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집안에 성공했고, 하반기 회복흐름에 따라 물동량 성장률 8%를 기록함

[2020년 전 세계 20대 항만 화물 물동량 순위]

순위	항만	2020년		2019년	
		물동량 (만 톤)	증가율	물동량 (만 톤)	증가율
1 (1)	닝보저우산	117,240	4.7%	112,009	7.9%
2 (2)	상하이	71,104	-0.8%	71,677	0.0%
3 (3)	탕산	70,260	7.0%	65,674	3.1%
4 (5)	광저우	61,239	1.0%	60,616	12.6%
5 (6)	칭다오	60,459	4.7%	57,736	6.6%
6 (4)	싱가폴	59,074	-5.7%	62,618	-0.6%
7 (7)	쑤저우	55,408	6.0%	52,275	-1.7%
8 (8)	헤들랜드	54,705	4.8%	52,188	0.8%
9 (9)	텐진	50,290	2.2%	49,220	4.1%
10 (11)	르자오	49,615	7.0%	46,377	6.0%
11 (10)	노테르담	43,680	-6.9%	46,940	0.5%
12 (12)	부산	41,052	-12.5%	46,899	1.3%
13 (13)	옌타이	39,935	3.4%	38,632	15.8%
14 (16)	전장	35,064	6.5%	32,916	108.7%
15 (14)	다렌	33,401	-8.8%	36,641	4.3%
16 (15)	난통	31,014	-7.8%	33,620	26.4%
17 (17)	황하	30,125	4.7%	28,716	0.0%
18 (18)	타이저우	30,111	6.6%	28,243	10.7%
19 (24)	베이부만	29,567	15.6%	25,568	14.7%
20 (19)	광양	27,327	-11.8%	30,971	3.0%

출처: 중국교통운수부, 각 항만 홈페이지

[2020년 전 세계 20대 컨테이너항만 컨테이너 수량 순위]

순위	항만	2020년		2019년	
		물동량 (만TEU)	증가율	물동량 (만TEU)	증가율
1 (1)	상하이	4,350	0.4%	4,331	3.1%
2 (2)	싱가폴	3,687	-0.9%	3,720	1.6%
3 (3)	닝보저우산	2,872	4.3%	2,753	4.5%
4 (4)	선전	2,655	3.0%	2,577	0.1%
5 (5)	광저우	2,317	1.5%	2,283	5.7%
6 (7)	칭다오	2,201	4.7%	2,101	8.8%
7 (6)	부산	2,181	-0.8%	2,191	1.1%
8 (9)	텐진	1,835	6.1%	1,730	8.1%
9 (8)	홍콩	1,796	-1.9%	1,836	-6.3%
10 (10)	노테르담	1,434	-3.2%	1,481	2.1%
11 (11)	두바이	1,349	-4.4%	1,411	-5.6%
12 (12)	클랑	1,324	-2.5%	1,358	10.3%
13 (13)	안트워프	1,202	1.4%	1,186	6.8%
14 (14)	샤먼	1,141	2.5%	1,112	3.9%
15 (18)	탄중펠레파스	980	8.0%	908	1.3%
16 (15)	가오슝	962	-7.7%	1,043	-0.2%
17 (16)	LA	921	-1.3%	934	-1.3%
18 (17)	함부르크	850	-7.9%	926	6.1%
19 (21)	롱비치	811	6.3%	763	5.7%
20 (22)	뉴욕/뉴저지	759	1.5%	747	4.1%

출처: 중국교통운수부, 각 항만 홈페이지, Alphaliner

(罗戈网, 2021. 3. 2.)

<http://www.logclub.com/articleInfo/MzI1NDg>

퀴네앤드나겔, 중국최대 민영 의약회사와 전략적 협력 체결

- 퀴네앤드나겔(Kuehne+Nagel, 이하 K&N), 은 2021년 2월 24일 중국 최대 민영 의약회사인 지우저우통(九州通)과 전략적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, 중국 내 의약품 물류 분야에서 입지를 키우겠다고 밝혔다
- 양측은 전문창고, 국제무역과 물류를 망라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협력을 할 예정이다
- K&N은 국제물류 서비스 업체로서 이미 10여년간 의약 및 의료제품 물류 업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전 세계 25개 시장을 커버하며, 100여개의 의약, 의료설비 및 의료제품 등과 관련한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
- 지우저우통(九州通)은 중의약 및 양약의 조제약, 의료기기, 소비재를 주로 취급하며 의료기관, 소매약국, 의약상업기업 및 정부조달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, 인터넷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대기업임
- 현재 중국내 자체 물류센터는 135개, 일반차량 1,700대, 냉장차량 200대, 냉장컨테이너 5,000개 및 911개의 배송센터를 갖추고 있어 고객들에게 전문화된 공급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
- K&N은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기존 지우저우통의 의료업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국 전역의 GSP(약품경영품질관리규범)인증 운영소로 구성된 의약창고와 운송 및 분배 네트워크에 진입하여 중의약과 의료제품 물류 분야에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됨

(中国航务周刊 2021. 2. 24.)

<https://mp.weixin.qq.com/s/i7KVPXROQlcCbCeJfgLQLQ>